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62]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2)96사단 주둔지 (1)편성부터 제주배치까지
산천단 일대는 일본군 요새였다

입력 : 2007. 04.12. 00:00:00



▲취재팀이 일본군 96사단 292연대 주둔지였던 산천단계곡의 갭도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사단사령부 292연대 기마부대 주둔

전차 등 중무장 실태조사도 안돼

60여 년 전 일본토 사수를 위해 제주도 전체를 요새화 했던 일본군은 병력 배치 및 진지구축 상황을 담은 두 장의 지도를 남긴다. 바로 '제58군배비개건도'와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가 그것이다. 그 중 제58군배비개건도는 제주도내 진지 및 사단 주둔지 등을 표시해놓고 있다. 이 지도에는 제96사단 주둔지로 제주시 산천단 및 삼의양오름 일대가 표시돼 있다.

제96사단은 언제 제주에 배치되기 시작했을까.

일본이 태평양전쟁(1941년 12월 7일~1945년 8월)에서 패전위기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1945년 초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그해 2월 미군에 의해 일본 이오섬(硫黃島)이 함락되자 일본 대본영은 큰 충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일본토 사수를 위한 작전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다. 그 결과 그해 3월 12일에는 일본 최고전쟁지도회의인 대본영에서 '결호(決號)작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다. 이때부터

일본군 제96사단의 제주배치가 공식 거론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날 최고전쟁지도회의에 따라 3월20일에는 한반도를 관할하던 일본군 제17방면군에게 결호작전 준비요강이 하달된다.

주요 골자는 작전명은 '결호작전'으로 하고 제58군사령부 설치 및 그 예하에 제96사단과 제111사단, 독립혼성제108여단 등을 배치토록 하는 것이다. 모든 작전은 8월 이후로 예상되는 미군의 제주도 상륙에 대비해서 착착 진행됐다.

제96사단은 1945년 3월 10일 신설된 후 4월 1일부터 제주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사단장은 이 이누마 중장에서 제주에 배치될 때는 다마다 요시로 중장으로 바뀐다. 총 병력은 보병 제292, 293, 294연대 등 3개 연대로 구성된 사단 본대 9천명에다 예하부대 2천명을 포함하면 1만1천명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일본 규슈의 후쿠오카와 오오무라 등지의 병력으로 편성됐다.

제96사단은 어디에 주둔했을까.

제96사단의 주둔범위는 제주도 북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포진했다. 96사단은 2개의 비행장(동·서 비행장이었던 진드르와 정뜨르) 및 산지항, 58군사령부 등이 있어서 제주서남부에 포진한 제111사단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일본군 기마부대 주둔지인 제주시 산천단 도깨비도로 인근.

1945년 4월 1일 마침내 96사단 병력 가운데 292연대 일부 병력과 박격포부대는 모슬포로 처음 상륙했다. 그 후 얼마동안

은 진지구축 작업에 참여하다가 보름여 뒤인 4월18일에 사단사령부는 산천단 일대로 이동한다. 나머지 293연대는 제주시 오라동 일대에, 294연대는 제주시 명도암 일대를 중심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96사단 병력은 개인화기는 물론 박격포와 야포, 전차 등 중무장 화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주시 산천단 및 삼의양오름 '섯굴치' 일대에는 60여 년 전 일본군 주둔흔적이 생생히 남아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팀이 만난 안재만씨는 "제주시 산천단 일대에 96사단 사령부를 비롯 일본군이 가득했고, '섯굴치' 일대에 일본군들이 직접 많은 굴(갱도)를 팠다"고 일본군 주둔실상을 증언했다. 안씨는 또 "인근의 도깨비도로와 연계해서 역사관광자원화 방안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특별취재팀=이윤형 표성준 이승철기자

[현장인터뷰/제주시 삼도2동 안재만씨]산천단 일대 일병력 막사로 가득



안재만씨(1931년 생·제주시 삼도2동)는 1944년 10월부터 광복때까지 제주시 산천단에 있던 일본군 제96사단 사단장실의 경리부에서 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 아라국민학교를 졸업한 안씨는 일본말을 잘했기 때문에 주로 문서 연락 등을 담당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돈으로 월급도 받았다.

안씨에 따르면 "96사단은 '겐(玄)부다이'로 불렸다"며 "사라봉 일대 주둔 병력까지 겐부다이 소속"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산천단 곰솔 일대는 취사장이 있었습니다. 큰 가마솥 16개를 걸어놓고 사령부 부대원들을 먹였죠."

안씨가 일했던 경리부는 곰솔 뒤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금 곰솔은 그대로지만 당시는 주변에 잔나무들이 없었다.

"산천단 일대가 전부 막사였는데, 막사 지붕은 도당으로 하고 밑에는 널빤지로 지었습니다. 일부는 천막치고 살았죠."

안씨는 또 산천단 일대의 일본군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지금의 일명 도깨비도로 남쪽 별판에는 기마부대가 있었습니다. 말이 약 1백마리 이상은 된 걸로 기억합니다. 도깨비도로 아래쪽 '섯굴치'에는 연대본부 병력이 주둔했습니다. 2연대(292연대) 병력은 보병인데 연대장은 전용말을 타고 다녔고 사령관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영관급은 말을 타고 다녔죠."

안씨에 따르면 당시 일본군 '도리데부대'는 산천단에서 어승생까지 전주를 세웠는데 그 일은 한국 징용병들이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의 제주시 정실마을 부근 해군제주방어사령부가 위치한 일대에는 고사포 부대가 있었고, 남조순오름에는 고사포가 설치됐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안씨는 이어 "관음사 야영장 근처에는 야전병원이 자리했다"고 설명했다. 야전병원 막사는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그 길이가 1백m 이상은 됐다는 것. 의무대와 야전병원이 따로 있어서 야전병원에는 의무대서 손을 못쓰는 중환자들이 입원을 했다고 말했다.

산천단 금괴가 묻혀있다는 설이 나돌면서 '보물찾기' 작업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 안씨는 "만주 관동군사령부 금괴를 싣고 왔다는 이야기를 일본군 패전 뒤 나중에야 소문으로 들었다"며 "그 진위여부는 모른다"고 말했다.

안씨는 이와 함께 일본군 패전 뒤의 상황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다.

"지금의 제주시청 자리는 당시 별판(광양별판)이었는데, 거기에 일본군 패전 뒤 전차와 마차가 잔뜩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은 미군부대가 관리한다. 이것을 움직이거나 파손할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있었습니다"고 덧붙였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